

世宗 御
나랏말
中 國
文 字
이런 전
어린 百
只 咄 내 咄
내 이 咄
새로 人

$\frac{77}{12}$ 이 있는 저분은 흥분하지 않는다.

9 르비 애비앙 중 다 2020 파이널 오션지



오르비 애비앙을종다의 생활과 윤리

2020 교육청, 평가원 선지

수능 파이팅^~^

1) 환경 윤리

2) 요나스

3) 사회 정의

4) 형벌

5) 시민 불복종

6) 해외 원조

7) 전쟁과 평화

8) 종교 윤리 - 엘리아데

9) 직업 윤리

PART 01. 환경 윤리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레건, 테일러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2019.3)	
2	레건, 테일러	싱어와 달리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2019.3)	
3	싱어, 레건, 테일러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3)	
4	테일러, 싱어	레건과 달리 모든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2019.3)	
5	아리스토텔레스, 레오폴드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9.4)	
6	싱어	유정(有情)적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 방법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2019.4)	
7	레오폴드	대지의 온전함을 위해 인간이 져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2019.4)	
8	싱어	인간과 포유류의 복리(福利)를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019.4)	
9	테일러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2019.6)	
10	레오폴드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는 잘못이다.(2019.6)	
11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와 달리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2019.6)	
12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와 달리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2019.6)	
13	칸트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2019.6)	

ANSWER

1	☐ O	2	☐ X	3	☐ O	4	☐ X	5	☐ O	6	☐ X	7	☐ O
8	☐ O	9	☐ X	10	☐ X	11	☐ X	12	☐ O	13	☐ X		

PART 01. 환경 윤리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2019.7)	
15	레오폴드	칸트, 테일러와 달리 개체의 번영보다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2019.7)	
16	테일러, 레오폴드	칸트와 달리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9.7)	
17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	인간이 비이성적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9.7)	
18	테일러	레오폴드와 달리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2019.9)	
19	레건	레오폴드, 테일러와 달리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2019.9)	
20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와 달리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9.9)	
21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019.9)	
22	생태 중심주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2019.9)	
23	아퀴나스	동물은 이성적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2019.10)	
24	아퀴나스	테일러와 달리 인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비이성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0)	
25	테일러	인간은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을 존중해야 한다. (2019.10)	

ANSWER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PART 02. 요나스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요나스	인간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보다 진보에 주목해야 한다. (2019.4)	
2	요나스	인간은 사후적 책임뿐 아니라 예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2019.4)	
3	요나스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2019.4)	
4	요나스	인간의 책임 범위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 한정되어야 한다. (2019.4)	
5	요나스	인간 이외의 생명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2019.4)	
6	요나스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된다. (2019.7)	
7	요나스	인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과 양립 불가능하다. (2019.7)	
8	요나스	미리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2019.7)	
9	요나스	현세대는 책임의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해야 한다.(2019.7)	
10	요나스	인간은 인류의 지속적인 존속을 무조건적 명령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9.7)	
11	요나스	윤리의 토대에 대한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2019.7)	

ANSWER

1	X	2	O	3	X	4	X	5	X	6	O	7	X
8	O	9	O	10	O	11	O						

PART 03. 사회 정의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노직, 롤스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를 정의롭다고 본다. (2019.3)	
2	롤스	벤담과 달리 빈민의 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2019.3)	
3	롤스	정의의 원칙들 간에는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19.3)	
4	노직, 롤스, 벤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야 정의로운 사회이다. (2019.3)	
5	노직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2019.4)	
6	노직	롤스와 달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9.4)	
7	노직, 롤스	분배의 공정함은 결과보다는 절차의 공정함에 기인한다. (2019.4)	
8	롤스	노직과 달리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2019.4)	
9	롤스	천부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2019.4)	
10	노직	롤스, 마르크스와 달리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2019.6)	
11	노직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2019.6)	
12	마르크스	개인의 노동량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2019.6)	
13	노직	롤스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2019.6)	

ANSWE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PART 03. 사회 정의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롤스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 (2019.6)	
15	마르크스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은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2019.6)	
16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롤스와 달리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2019.7)	
17	노직	롤스와 달리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2019.7)	
18	노직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로 보장된다. (2019.7)	
19	롤스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 (2019.7)	
20	롤스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2019.9)	
21	노직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2019.9)	
22	롤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 (2019.9)	
23	롤스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2019.9)	
24	노직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9.9)	
25	노직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2019.9)	
26	롤스, 노직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2019.9)	

ANSWER

14	☐ O	15	☐ O	16	☐ O	17	☐ O	18	☐ X	19	☐ O	20	☐ O
21	☐ O	22	☐ X	23	☐ O	24	☐ O	25	☐ O	26	☐ O		

PART 03. 사회 정의 O or X

[illegible][illegible]

PART 04. 형벌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베카리아, 벤담	칸트와 달리 형벌을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2019.3)	
2	벤담, 베카리아	형벌의 방법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019.3)	
3	벤담,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이다. (2019.3)	
4	벤담, 베카리아, 칸트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2019.3)	
5	벤담, 베카리아, 칸트	형벌의 크기는 범지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 한다. (2019.3)	
6	칸트	보복법마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2019.4)	
7	베카리아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2019.4)	
8	칸트, 베카리아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된다. (2019.4)	
9	칸트,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019.4)	
10	칸트	베카리아와 달리 사형을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2019.6)	
11	칸트, 베카리아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2019.6)	
12	베카리아, 벤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2019.6)	
13	베카리아, 벤담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2019.6)	

ANSWE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PART 04 형벌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칸트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2019.6)	
15	칸트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시민사회를 위한 다른 어떤 선의 수단뿐 아니라 범죄자 자신을 위한 다른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면 안 된다. (2019.6)	
16	벤담, 베카리아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다. (2019.6)	
17	베카리아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2019.6)	
18	칸트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이다. (2019.7)	
19	칸트	사형제는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2019.7)	
20	벤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2019.7)	
21	벤담	형벌의 유용성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019.7)	
22	벤담, 칸트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례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019.7)	
23	칸트, 루소	베카리아와 달리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9.9)	
24	칸트	루소와 달리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019.9)	
25	루소	베카리아와 달리 형벌적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2019.9)	
26	베카리아	칸트와 달리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닌 응보에 있음을 인정한다. (2019.9)	

ANSWER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PART 04. 형벌 O or X

[illegible]

ANSWER	
27	O
34	X

PART 05. 시민 불복종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소로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2019.3)	
2	소로	개인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2019.3)	
3	롤스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2019.3)	
4	롤스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2019.3)	
5	소로, 롤스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9.3)	
6	소로	시민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2019.4)	
7	소로	개인의 양심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019.4)	
8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2019.4)	
9	롤스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9.4)	
10	롤스, 소로	시민 불복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위이다. (2019.4)	
11	롤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2019.6)	
12	롤스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2019.6)	
13	롤스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2019.6)	

ANSWER

1	X	2	O	3	O	4	O	5	O	6	X	7	X
8	O	9	X	10	X	11	X	12	X	13	O		

PART 05. 시민 불복종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롤스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2019.6)	
15	롤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2019.6)	
16	롤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2019.6)	
17	롤스	시민 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2019.7)	
18	롤스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2019.7)	
19	롤스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2019.7)	
20	롤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2019.7)	
21	롤스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7)	
22	소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9)	
23	롤스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2019.9)	
24	롤스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19.9)	
25	롤스, 소로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2019.9)	
26	소로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도 된다. (2019.9)	

ANSWER

14	☐ O	15	☐ X	16	☐ O	17	☐ O	18	☐ X	19	☐ X	20	☐ X
21	☐ X	22	☐ O	23	☐ X	24	☐ X	25	☐ O	26	☐ O		

PART 05. 시민 불복종 O or X

[illegible][illegible]

PART 06. 해외 원조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롤스	원조 대상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9.3)	
2	롤스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2019.3)	
3	싱어	원조 새아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 (2019.3)	
4	싱어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하다. (2019.3)	
5	롤스, 싱어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2019.3)	
6	싱어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은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2019.4)	
7	싱어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2019.4)	
8	롤스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도록 돕는 것을 해외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다. (2019.4)	
9	롤스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복지 수준이 평등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2019.4)	
10	싱어, 롤스	타국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가 인류의 도덕적 의무이다. (2019.4)	
11	싱어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가 균등할 때까지 원조해야 한다. (2019.6)	
12	싱어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 (2019.6)	
13	롤스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19.6)	

ANSWE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PART 06. 해외 원조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싱어, 룰스	해외 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2019.6)	
15	싱어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2019.6)	
16	싱어	원조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 (2019.6)	
17	룰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2019.6)	
18	싱어	원조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동기로 행해져야 한다. (2019.7)	
19	싱어	원조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으로 한정해야 한다. (2019.7)	
20	룰스	원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2019.7)	
21	룰스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빈곤국의 정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2019.7)	
22	룰스, 싱어	원조 여부는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019.7)	
23	룰스	원조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조정이 목표이다.	
24	룰스	원조는 국가 간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윤리적 의무이다.	
25	싱어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6	싱어	원조의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ANSWER

14	☐ O	15	☐ O	16	☐ O	17	☐ O	18	☐ X	19	☐ X	20	☐ X
21	☐ O	22	☐ X	23	☐ X	24	☐ X	25	☐ O	26	☐ O		

PART 07. 전쟁과 평화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갈통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2019.3)	
2	갈통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2019.3)	
3	칸트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2019.3)	
4	칸트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2019.3)	
5	갈통, 칸트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2019.3)	
6	현실주의	왈처와 달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 전쟁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19.4)	
7	왈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2019.4)	
8	왈처	현실주의와 달리 방어 전쟁을 국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본다. (2019.4)	
9	왈처	현실주의와 달리 전쟁은 도덕적 조건을 준수하며 제한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9.4)	
10	왈처	합법적 권위를 지닌 정부가 선포한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정당하다. (2019.4)	
11	칸트	국가 간 적대 행위 중단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019.6)	
12	칸트	국가들의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영구 평화는 가능하다. (2019.6)	
13	왈처	타국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쟁은 모두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2019.6)	

ANSWER

1	☐ O	2	☐ O	3	☐ X	4	☐ O	5	☐ O	6	☐ O	7	☐ X
8	☐ X	9	☐ O	10	☐ X	11	☐ O	12	☐ X	13	☐ X		

PART 07. 전쟁과 평화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왈처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2019.6)	
15	칸트, 왈처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2019.6)	
16	칸트	전쟁 중에는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9.6)	
17	왈처	전쟁의 목적은 다른 국가의 성멸이 아닌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것이다. (2019.6)	
18	칸트	독립 국가는 매매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2019.7)	
19	칸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2019.7)	
20	왈처	전쟁에 동원되는 수단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9.7)	
21	왈처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평화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2019.7)	
22	칸트, 왈처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019.7)	
23	갈통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2019.9)	
24	갈통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를 통해 완성된다. (2019.9)	
25	왈처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019.9)	
26	왈처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2019.9)	

ANSWER

14	X	15	X	16	O	17	O	18	O	19	O	20	O
21	X	22	O	23	O	24	X	25	X	26	X		

PART 07. 전쟁과 평화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27	갈통, 왈처	평화를 위한 정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2019.9)	
28	갈통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2019.9)	
29	왈처	모든 전쟁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9)	
30	왈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2019.9)	
31	현실주의	국가는 자국의 존속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 (2019.10)	
32	왈처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쟁은 가능하다. (2019.10)	
33	갈통	침략을 당한 경우 비폭력 저항운동을 할 수 있다. (2019.10)	
34	왈처	현실주의, 갈통과 달리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9.10)	
35	현실주의, 갈통	왈처와 달리 전쟁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19.10)	

ANSWER

27	X	28	O	29	O	30	O	31	O	32	O	33	O
34	O	35	X										

PART 08. 종교 윤리 엘리아데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한다. (2019.4)	
2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절대적 실재를 믿는다. (2019.4)	
3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인 거소가 자연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2019.4)	
4	엘리아데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삶이 종교와 무관함을 인정해야 한다. (2019.4)	
5	엘리아데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임을 깨닫지 못해도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2019.4)	
6	엘리아데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2019.7)	
7	엘리아데	성과 속은 단절되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다. (2019.7)	
8	엘리아데	초월적 신은 자연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낸다. (2019.7)	
9	엘리아데	성스러움은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2019.9)	
10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2019.9)	
11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9.9)	
12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한다. (2019.9)	
13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2019.9)	

ANSWE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PART 08. 종교 윤리 엘리아데 O or X

[illegible]

14

PART 09. 직업 윤리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	칼뱅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다. (2019.3)	
2	칼뱅	신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2019.3)	
3	마르크스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분업에 참여해야 한다. (2019.3)	
4	마르크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2019.3)	
5	칼뱅	직업 생활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 (2019.4)	
6	칼뱅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서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2019.4)	
7	마르크스	직업 생활에서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노동 소외의 원인이 된다. (2019.4)	
8	마르크스	직업에서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해 자본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019.4)	
9	칼뱅, 마르크스	모든 직업 생활의 경제적 대가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2019.4)	
10	칼뱅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11	칼뱅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12	마르크스	노동의 본질 실현을 위해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해야 한다.	
13	칼뱅, 마르크스	노동 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ANSWER

1	X	2	O	3	X	4	O	5	X	6	X	7	O
8	X	9	X	10	O	11	X	12	O	13	X		

PART 09. 직업 윤리 O or X

번호	입장	선지	O or X
14	순자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순자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16	맹자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17	맹자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18	순자, 맹자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19	순자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통하지 않아도 다스릴 수 있다.	
20	순자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은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21	맹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살며 이는 세상의 이치이다.	

ANSWER

14	O	15	O	16	O	17	X	18	O	19	O	20	O
21	O												